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조롱과 저주,
가시면류관과 채찍,
못 박힘과 창에 찔림,
그리고 죽음...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하는
참람 된 죄인의 마땅한 최후처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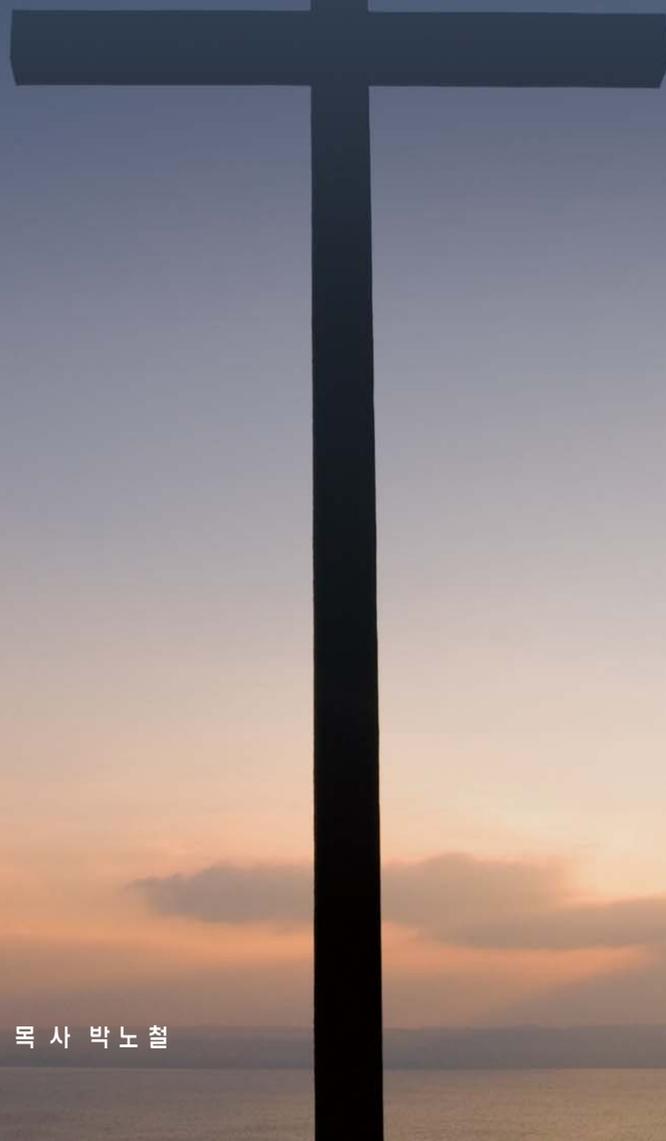
하지만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는 순간,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롭고 위대한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십자가로 인해 완성될 구원의 역사가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될 영생과 승리와 행복을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의 그 떨림과 기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 오는 것은
분명 성령님의 증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감히 부활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환란 중에 기뻐하고
가난한 중에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 사 박 노 철



할렐루야,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주일 I, II, III부 : 성찬예식 / 찬양예배 : 부활절 감사찬양

하나님은 죄로 인해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남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

며 가브리엘 찬양대(부장: 하인선 장로)가 부활절 칸타타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편 각 교회학교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을 가지고 나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며 전도에 힘쓰도록 한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찬양대원 세미나

4월26일(화) 오후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찬양대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 향상을 위한 찬양대원 세미나 및 기도회가 4월26일(화) 오후7시30분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강사는 총신대 교수(합창지

휘박사)이며 고양시립 합창단 상임지휘자인 이기선 교수가 서며 "어떻게 찬양 드릴까" 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다. 찬양대원은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제 1회 서울교회 의료인의 밤 행사

4월30일(토) 오후6시, 501호

제1회 의료인의 밤 행사가 오는 30일(토) 오후6시501호에서 열린다. 오후6시부터 식사 교제가 먼저 있는 후에 501호에서 박노철 목사 인도로 예배를 드린 후 의료선교회 소개와 활동보고 및 의료선교회 비전을 제시한다.

의료인과 의료봉사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행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기 바란다.

<서울교회 의료선교회 조직>

- 지도: 장석남 목사
- 부장: 노제현 집사
- 총무: 정철웅 집사
- 고문: 하인선 장로
- 차장: 박경정 집사
- 회계: 민효영 집사

- 공 고 -

당회는 지난 주일 임시당회를 통하여 오는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교인 체육대회를 사정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역시 노회 일정 상 내년 2월 중(잠정적)으로 연기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성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학습·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20일 수요일, 2부 예배시 2011년 두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례준비반 인터넷 카페(서울교회 홈페이지=>e공동체=>세례준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세례> 김 홍 송지수 이영필 이정애3 이지민2 이지혜 이혜정5 장수정 8명

<입교> 이재국1 허윤형 2명

<개종> 고아라 1명

<학습> 곽진호 김태현2 박연진 박윤지 방지은1 서은향 이경진5 전수현 전시경 조봉관 황성연 11명

<유아세례>

구은총 나진우 임세연 임하을 홍진우 5명 총27명

Happy Easter!

Celebrating Easter 52 Times a Year!

Yonghyun (John) Kim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changed everything. It is the pivotal historical event that all of Christianity and its testimony to the world rests on. If Jesus of Nazareth did not physically resurrect from death to life, if it was not real and did not happen, Christianity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lie and Christians ought to be pitied for believing in a lie (1 Cor. 15:1-19). The physical, historical resurrection of Jesus is central to the Christian faith. Not only that, it is the single event in history that radically "rocked" the world, more than the Holocaust or even the recent tsunamis in Indonesia and Japan.

Resurrection of Jesus separates the "old world" from the "new world" by realigning the original creation reality. Before the Resurrection, God gave the pattern to all humanity to work first during the first six days and then rest on the seventh (Gen. 2:1-3; Exo. 20:8-11). The same pattern was later repeated to Israel, with the additional, special redemptive meaning to commemorate their exodus from Egypt (Deut. 5:12-15). But when Jesus completed His ministry (John 19:30), the pattern has changed ever since to rest first then work. The Christian Sabbath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not the seventh, and is renamed as the Lord's Day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Acts 20:7, 1

Cor. 16:1-2, Rev. 1:10). It is the Lord Jesus' Day because it is on this day that He resurrected and secured the redemption of God's people from the depths of hell and sin! (and not merely from an oppressive nation). The New Sabbath is thus more expansive and more meaningful, and the Gregorian calendar rightly marks Sunday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It is a "red day" since it as a holy-day (holiday). The Lord's Day ought not to be grouped together with Saturday as "weekend." Rather, we should consider the 52 Sundays of the year as 52 miniature Easters.

Because Jesus completed all the work of salvation for us, we can rest. And because we rest in Him, we have the power and strength to work in the new world He has given to us to conquer, tame, and nourish during the remaining six days of the week. Even though the world is still corrupt and has the "thorns and thistles" given to us through the first Adam (Gen. 3:17-19), our Second Adam is making all things new (Rev. 21:5). To us,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a past event that gives us hope for our own bodily resurrection in the future. This "already-not yet" worldview enables us to rest first and rely on Jesus as our strength and shield for the remaining six days (Ps. 28:7).

Sadly in the West, the connection of Easter to Jesus is largely lost in the general conscientiousness and people more often think of Easter bunnies or egg hunts instead.

The English term "Easter" itself does not have a biblical connection. In this regard, the Korean word "Bu-hwal-jol" is better in retaining the Christian meaning, literally "the feast of Resurrection." By properly resting and feasting before the Lord today and on every first day of the week, we proclaim to the world not only that the Resurrection is real, but also that the new reality is here becaus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As we commemorate what happened today 2000 years ago, let us enter into His rest (Heb. 4:1-13) and feast before our Lord (Exo. 12:14, Lev.23) who prepares a table for us in the midst of our enemies (Ps. 23:5). Let us today and in all 52 mini-Easters of the year anticipate the coming Day of the Lord (1 Thes. 5:1-11, 2 Peter 3:1-13) and the reality of heaven (Matt. 22:1-14, 25:1-13) with Maranatha (Rev. 22:20)!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The Lord is risen!

He is risen indeed!



긴 침묵,
고통과 쓰라림과 절규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천 만 번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까지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인해
찬양합니다.

주일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이 기쁜 부활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 저녁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은혜를 나누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양철 집사(교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이 한참 재롱을 부리며 기쁨을 누릴 때인 1994년 초 루푸스라는 병으로 제 아내인 김미향집사가 세상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회가 논현동에서 반포동으로 한참 이사하고 있던 때에 땀을 흘리며 무거운 장의자를 나르고 계신 교구 담당 장용희 목사님을 찾아가서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느날은 교회에서 젊은 여성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희 집에 전화하셔서 울먹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질 못하시길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김미향 집사가 천국 간 걸로 잘못 아시고 전화하셨다고 얼른 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고 죽은 줄로까지 알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셔서 지금까지 써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도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케 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인 제게 말로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은 웬 사랑인가요?

모태 신앙인 이라고 하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하는가? 라고



당는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향마을에서 교회를 가던 길에 바닷가를 지나가노라면 돛단배가 바람을 이용하여 가던 모습을 자주 보았기에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되며 가슴속 깊이 파고 듭니다. 그 후로 저에게 이런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어진 인생 그렇게 살다 주님께 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 했구요 성경의 탕자 비유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 했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의 큰 모순과 착각이지요... 그러한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생명 조차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 드리니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고난을 통해서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때마다 제 가슴에 와

당는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향마을에서 교회를 가던 길에 바닷가를 지나가노라면 돛단배가 바람을 이용하여 가던 모습을 자주 보았기에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되며 가슴속 깊이 파고 듭니다. 그 후로 저에게 이런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어진 인생 그렇게 살다 주님께 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교회 의료인 여러분, 저희 서울교회는 이제 스무 살을 넘어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종원 원로목사님의 뒤를 이어 박노철 목사님의 부임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인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의료인 공동체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와 우리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서울교회 의료인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암흑

우주의 신음과 진통속에
휘장이 찢기고

새벽
한줄기 빛이 비추입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
당신이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진정 몰랐습니다.

가시면류관
고난의 골고다
갈보리의 십자가

이제 나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오늘
영혼의 빛으로 오신
당신을 맞이합니다.

안성의 집사(9교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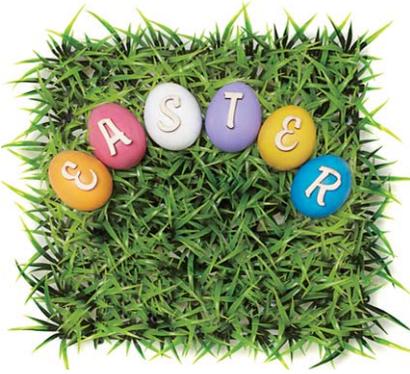


정인영 (중등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활절은 그냥 달걀을 꾸미고 교환하고 먹는 날인 줄만 알았던 저에게 지난해 다녀온 단기선교는 많은 것들

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많은 환경과 여건 (가족, 집, 내방, 그리고 친구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니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모태신앙이었던 것도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나 그러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나오면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거의 헛소리라는 반응과 어이없다는 웃음을 보이곤 했는데 그럴 때 저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속으로는 누가 옳은 것인지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살았는데 '정말 진짜일까? 가짜 일까?'라는 생각과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가짜이겠어?'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 질문하게 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인류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다.' 라는 내용을 배우고 있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을 때여서 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부터 교회에 와서도 '이것이 다 가짜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갈등하며 교회를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단기선교 활동을 다녀온 후, 하나님은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제가 받은 많은 행복과 평화를 저만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런 행복과 평화를 받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란에서 벗어나서 예전보다 열심히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행복의 일꾼, 평화의 일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게 도와주세요! 아멘.

화요정오음악회

4.26(화) 정오, 본당(관람은 3층)

· 김현정 / 오르간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B.M.) 및 동대학원 (M.M.) 졸업
-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CNSMD de Lyon) 수페리어과정 졸업 (DNESM)
- 제3회 독일 에어푸르트 국제오르간 콩쿠르 2등
- 현) 연세대, 한예종, 장신대, 침신대, 백석예술대 출강, 서울 교회 오르가니스트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24일(주일)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 한다. 25일(월) 유럽선교사대회 인도차 출국한다.
- 선임 : 1교구 황대준 성도(허미옥 집사 부군, 성균관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0대 사무총장으로 선임
- 주간식당봉사: 한나전도회(4.24) 리브가전도회(5.1)
- 금주의 식사제공: 교회제공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이에원 (고등부)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 예전의 나도 그랬었다. 모태신앙

으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항상 말했지만 중학생 때까지도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가끔씩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의심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수련회와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여러 기도 응답을 통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개 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며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믿음도 한층 성숙해졌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고등부 친구

들에게 내가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

하지만 바쁜 고교생활 특히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원에 가야 한다고 교회를 빠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매주 나오겠다고 하고서는 주일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고등부 회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 같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모두 교회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으로서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번 부활절에는 눈을 들어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다락방장 훈련과 금요기도회의 지속적 부흥을 위해
3.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4. 4.27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5. 복음화 된 통일조국의 실현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